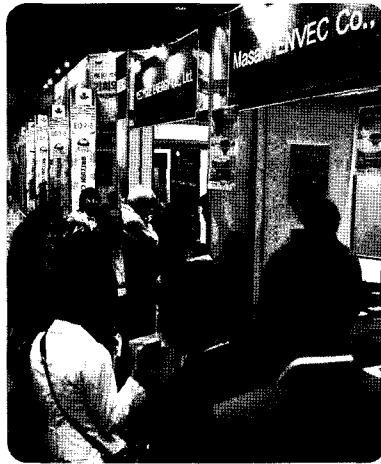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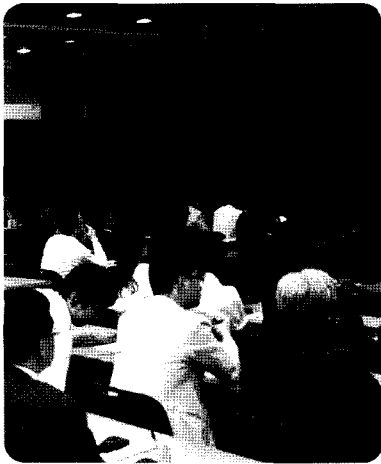


저탄소 녹색환경기술 및
친환경 에너지 기술분야의 국내 최대 환경전문 전시회
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&그린에너지전(ENVEX2011)
성황리에 마쳐...



- 총 25개국 305업체가 참가하여 '폐자원 에너지화 기술', '중대형 막분리 고도 정수처리시스템' 등 약 2천 여종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
- 일본, 인도네시아 등 51여개국 1천여명의 해외바이어 참가, 약 1천억원 이상의 수출계약 전망
- 한·캐나다 공동주최 해외바이어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 동시 개최

〈편집부〉



국내·외 친환경 녹색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한자리
에 선보인 「제33회 국제환경산업기술 & 그린에너지전(ENVEX2011)」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, B홀
(13,194m²)에서 총 25개국 305업체(723부스)가 참여한 가운데
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0일 막을 내렸다.

환경보전협회(회장 손경식)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, 환경부, 지경부
등 정부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
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
국제환경산업기술&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.

이번 전시회는 태양열을 이용한 정수기,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,
유효율 성능개선제, 아토피 예방 샴피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
적용이 가능한 신기술들과 유해발암물질 제거 필터 시스템, 수처
리용 분리막 등 일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녹색기술과 신제품
등 총 2천여종이 전시되었으며, 국내 환경산업체에 새로운 해외
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산업 수출 전
락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환경보전협회에서는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함으로써 국내 환경
산업체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. 특히 일본, 인도네시아,
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이 유망한 24개 국가의 구매력이 큰 해외
바이어 135명을 선별, 직접 초청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
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었으며, 전시
기간 중 해외바이어들이 상담한 국내기업의 회사 및 시공현장을
직접 방문하는 등 어느해 보다 활발한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다.
총 51여개국 1,013명의 해외바이어가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
 집계되었으며, 사전 비즈니스 매칭과 해외네트워크 행사 등 여러
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. 이러한 해외바이어 초청은 그동안
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내 중소기업
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보면
상담액이 5,251억원, 계약 추진액이 2,015억원에 이르는 등 전시
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
것으로 조사되었다.

또한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우수 인재
확보를 위한 「저탄소 녹색성장 취업박람회」를 작년 이어 금년
에도 동시에 개최하여 기업체와 청년 구직자간 연결의 장을 마련
하였으며, 동 행사를 통해 총 42업체의 업체에 2,000여명의
매칭이 이루어 졌으며, 11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었다. 또한 환경
보전협회 자문변호사(법무법인 로월드)가 직접 전시장에 상주하
면서 참여기업체 환경법을 자문을 하는 무료환경법률상담센터 운
영과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
위한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참여를
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(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미래

유망녹색환경산업기술 세미나와 Korea-EU Soil Remediation
workshop, 국제환경산업기술세미나 등)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
하여 전시회 방문 기업이나 관람객에게 보다 알찬 정보를 제공
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.

금년에는 총 49,725명이 전시장을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
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, 총 25개국 305업체 중 국내
업체는 202개, 외국업체는 103개사가 참가를 하였다. 특히 금년
전시회에는 대륙별 단체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어느해보다
해외 참가 업체들의 참가가 높았다. 대륙별 단체관으로는 아시아는
일본, 인도네시아가 북미는 미국, 캐나다, 유럽은 EU 단체관으로
구성하여 참가하였다. 또한 **출품물 동향**을 살펴보면, 전체적으로는
수질분야가 34.4%로 가장 많고, 측정분석기분야 23.3%, 신재생
에너지 8.5%등 순으로 나타났다. < 표-2 참조 >

< 표-1 국가별 참가업체수 >

참가국	한	일	미	독	캐	인도	중	프	영	이	말	뉴
총계	국	본	국	일	나	네시	국	랑스	국	탈리아	레이	질랜드
305	202	25	16	14	12	6	6	3	3	2	2	1
지역	호주	핀란드	이스라엘	오스트리아	싱가포르	스페인	스위스	벨기에	네덜란드	덴마크	네덜란드	EU
1	1	1	1	1	1	1	1	1	1	1	1	1

< 표-2 분야별 출품현황 >

업체수	출품분야	수질분야	대기분야	폐기물분야	환경복원/토양
305		105	30	21	1
측정/분석기 분야	친환경 건설	친환경 에너지	환경 서적	친환경 상품	기관/교육/홍보
69	4	23	2	19	31

내년 제34회 국제환경산업기술&그린에너지전(ENVEX2012 :
2012. 6월중, 코엑스)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
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
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
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중국상해국제환경보호전(EPTTE),
미국 수처리전(WEFTEC), 일본 동경 뉴환경전, 인도네시아 수처
리전 등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
있다. 금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수처리·환경전(11. 7. 14 - 7.
16), 베트남 수처리·환경전(11. 11. 24 - 11. 26)에 참가하여
한국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,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
참가를 통한 환경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국제환경산업기술 & 그린에너지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
<http://www.envex.or.kr>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